

한국 시민의 좌파 포퓰리즘 성향과 우파 포퓰리즘 성향 비교: 쟁점입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정동준 | 인하대학교

| 국문요약 |

포퓰리즘은 좌우 이념에 따라 다른 내용을 가진다는 점에서 개인 차원의 포퓰리즘 성향 역시 좌파와 우파에 따라 서로 다른 정치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시민의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 성향은 얼마나 떨어져있고, 서로 어떤 정치적 특성을 갖는가? 설문조사 분석 결과, 인민중심주의와 반엘리트주의에 기반하는 한국인의 포퓰리즘 성향은 우파보다는 좌파에서 강하게 나타났고, 쟁점입장에서도 좌파 포퓰리즘이 보다 뚜렷하고 극단적인 입장을 보였다. 포퓰리즘 성향과 구분하여 측정된 반다원주의 성향은 반대로 우파와의 연관이 보다 강하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의 경우 좌우 포퓰리즘 모두 정부와 국회에 대한 낮은 신뢰를 보였지만,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반다원주의 성향은 좌우를 막론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켰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포퓰리즘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국민의 정치적 권한 강화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대의 기구에 대한 불신이 향후 우파 포퓰리즘과 반다원주의가 확산될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주제어 | 좌파 포퓰리즘 성향, 우파 포퓰리즘 성향, 극단적 쟁점입장, 정치 신뢰, 민주주의 지지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서론

1990년대 이후 유럽과 남미 등 전 세계에서 관찰되고 있는 포퓰리즘의 대두는 그간 많은 학자들의 이목을 끌어들였다(Akkerman et al. 2014; Remmer 2012; Van Hauwaert et al. 2020). 특히 2008년 서유럽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경기 침체와 대규모 난민 사태 등으로 유럽에서는 이러한 사회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주류정당을 비판하며 포퓰리즘 운동이 퍼져나갔고, 이들이 점차 정당으로 조직화하며 주류 정치에도 편입하고 있다(Donovan 2019; Grzymala-Busse 2019; Mudde 2007, 2016). 포퓰리즘은 개념상 이념적으로 좌와 우,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기에 현재 유럽에서 포퓰리즘 정당은 특히 좌우의 극단적 입장을 모두 대변하며 기성 정치를 흔들고 있다(Bertsou and Caramani 2020; Marcos-Marneá et al. 2021; Mudde 2016).

이러한 포퓰리즘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위로부터 공급자 차원에서 포퓰리즘 운동과 정당의 대두를 이해하고 그 원인과 효과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아래로부터 수요자 차원에서 일반 시민들의 포퓰리즘 성향(populist attitudes)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도모연 2021a; 하상응 2018; Akkerman et al. 2014; Akkerman et al. 2017; Van Hauwaert and Van Kessel 2018; Van Hauwaert et al. 2020).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포퓰리즘 운동의 확산과 조직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개인 차원의 포퓰리즘 성향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Medeiros 2021; Rooduijn et al. 2016; Silva and Wratil 2021; Spruyt et al. 2016).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는 해외 학계의 흐름에 비해 한국의 포퓰리즘 연구는 아직까지 비교적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에서 포퓰리즘 연구가 많이 행해지지 않은 이유로는 박선경(2022)의 지적과 같이 아직까지 국내에 명확하게 포퓰리스트라 부를만한 정당 혹은 정치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보니 위로부터의 포퓰리즘 연구는 물론, 이를 촉진하는 아래로부터 개인

수준의 포퓰리즘 성향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 주장하듯, 포퓰리즘 성향은 위로부터 포퓰리즘 세력의 공급 없이도 아래로부터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한국도 최근 갈수록 심화하는 정치 양극화 속에서(김기동·이재목 2021; 장승진·서정규 2019; 정동준 2018) 일부 정당과 정치인의 포퓰리스트적 언행과 정책을 통한 위로부터의 포퓰리즘 확산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박선경 2022; 안이수 2018; 이연호·임유진 2022; 차태서 2021; 채진원 2019).

이러한 위로부터의 포퓰리즘의 대두와 함께 최근 한국 학계에도 아래로부터 한국인의 포퓰리즘 성향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는 크게 포퓰리즘 성향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회배경과 정치경제적 태도 등의 요인에 관한 연구(도묘연 2021a, 2022a ; 박선경 2022; 송승호·김남규 2023)와 포퓰리즘 성향이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정치 관심과 참여, 민주적 태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묘연 2021b, 2022b; 하상웅 2018)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들은 포퓰리즘 성향을 모든 집단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단일한 현상으로 간주하여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집단에 따른, 특히 좌우의 이념 성향에 따라 어떻게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는 주목하지 않았다.

기술하였듯이 포퓰리즘이란 이념적으로 좌우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고, 좌파 포퓰리즘이나 우파 포퓰리즘이냐에 따라 쟁점입장과 정치적 성격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좌파 포퓰리즘은 경제적 이슈, 우파 포퓰리즘은 사회문화적 이슈와 보다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고,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는 좌파 포퓰리즘은 상대적으로 포용적이고 다원적인 태도를 지니며 자국민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우파 포퓰리즘은 배타적이고 반다원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병기 2023; Akkerman et al. 2017; Vasilopoulos and Jost 2020). 즉, 같은 포퓰리즘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이념과 연결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정치적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좌파 포퓰리즘의 경우 그 포용적 성격이 기존의 대의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발견된다면 꼭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흔히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병리적 현상으로 이해되나 최근 등장하는 포퓰리즘은 기존 대의제가 가진 한계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래로부터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고자 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롭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도묘연 2021a; 정병기 2023; Mudde and Rovira Kaltwasser 2017).

따라서 한국인의 포퓰리즘 성향 역시 하나의 성향으로 다루기보다는 좌우 이념과의 연계 속에서 서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부 국내연구에서 이념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긴 하였으나(도묘연 2021a) 포퓰리즘 성향을 좌파와 우파로 나누고 각 포퓰리즘 성향이 어느 정도로 분포하는지, 그리고 서로 어떻게 다른 정치적 특성을 가지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된 바 없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자 한국인의 포퓰리즘 성향을 좌파와 우파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각 성향이 가진 정치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인 사이에서 포퓰리즘 성향이 좌우 집단에서 각각 얼마나 강하게 분포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 성향이 서로 어떻게 다른 쟁점입장 및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저자의 고유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한국인의 포퓰리즘 성향을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포퓰리즘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기존 연구

1. 포퓰리즘의 개념과 특징

포퓰리즘은 하나로 떨어지는 정의를 갖지 않는 다면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다(도묘연 2021a, 2022a; 박선경 2022; 하상웅 2018; Akkerman et al. 2017; Silva

et al. 2020; Vasilopoulos and Jost 2020). 학계에서 포퓰리즘이란 개념은 여러 가지 사상의 집합체, 정치적 운동이나 조직, 혹은 정치 스타일의 하나 등으로 다루어졌다(Van Hauwaert and Van Kessel 2018; Van Hauwaert et al. 2020). 이러한 다양한 정의는 그만큼 포퓰리즘의 개념과 조작에 혼돈을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 학계에서는 포퓰리즘을 여러 사상을 집합적으로 포괄하는 ‘사상적 접근(ideational approach)’으로 바라보는 데 어느 정도 합의하고 있다(Mudde and Rovira Kaltwasser 2017; Van Hauwaert and Van Kessel 2018; Van Hauwaert et al. 2020). 즉 포퓰리즘을 정치적 조직이나 스타일을 넘어 어떠한 사상과 이념을 가진 것으로 보되, 기존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등과 같이 명확하게 정해진 내용을 가지기보다는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폭넓은 사상의 집합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자들은 포퓰리즘을 ‘얇은 이념(a thin ideology)’이라 부르기도 한다(Akkerman et al. 2014; Loew and Faas 2019; Mudde 2007; Vasilopoulos and Jost 2020). 포괄하는 사상이 다양하기에 스스로 명확한 이념적 내용을 가지기보다는 다른 ‘숙주 이념(a host ideology)’¹⁾이나 정치적 쟁점과의 연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어떠한 맥락과 사상에 연관되어 사용되는 지에 따라 그 개념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개념의 추상적 수준이 높을수록 지나친 ‘개념의 확장(conceptual stretching)’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Sartori 1970) 학문적 검소함(parsimony)을 위해 공통으로 기반하는 몇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포퓰리즘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Akkerman et al. 2014).

포퓰리즘의 첫 번째 특징은 인민중심주의(people-centrism)이다. 국민이 최고의 주권을 가지며 모든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은 ‘국민의 뜻(will of the people)’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특히 유럽과 남미를 중심으로 포퓰리

1) 얇은 이념과 반대의 의미로 ‘두꺼운 이념(a thick ideology)’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일련의 쟁점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가질 정도로 자신만의 이론과 특징이 명확히 정립된 이념을 일컬으며 기존의 좌우 이념으로 분류되는 자유주의·보수주의, 사회주의·자본주의 등의 이념들을 들 수 있다

스트 정당들이 약진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기존 주류 정당의 정치적 실패라는 점을 고려할 때(Grzymala-Busse 2019), 이러한 인민중심주의는 기성정치가 보여준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긍정적 측면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도모연 2021a, 2022a; 차태서 2021; Mudde and Rovira Kaltwasser 2017). 하지만 문제는 포퓰리즘이 말하는 국민의 범위가 다원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포퓰리즘에서 말하는 국민이란 대개 그 사회의 주류 집단을 지칭하는 배타적 개념이다. 이러한 주류 집단에 속하지 않는 소수집단은 이들이 말하는 국민의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기본적으로 반다원적(anti-pluralistic)이다.

이러한 점은 포퓰리즘의 두 번째 특징인 반엘리트주의(anti-elitism)와 연결된다. 포퓰리스트들에게 엘리트, 즉 정치인이란 자신들의 이익만을 좇는 부패한 집단이다. 또한 엘리트란 기성정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란 점에서 포퓰리즘은 기존의 정치인과 정당, 나아가 정치 제도를 불신하는 반기성주의(anti-establishment)의 특징을 가진다. 세 번째 특징은, 이러한 인민중심주의와 반엘리트주의가 만남으로써 사회를 ‘국민 대(對) 엘리트’의 이분법적 선악 구도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순수하고 선한 국민에 대비하여 엘리트는 부패하고 악한 것으로 뵈으로써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선과 악의 도덕적 가치로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선악 구도 아래 국민과 엘리트는 대립적 관계에 놓이게 되고, 타락한 엘리트를 순수한 국민이 몰아내는 것이 정당화된다. 종합하면, 포퓰리즘이란 “사회를 궁극적으로 ‘순수한 국민’과 ‘부패한 엘리트’라는 동질적이고 적대적인 두 집단으로 나누고, 정치란 국민의 뜻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얇은 사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Mudde 2007, 23).

2. 포퓰리즘 성향에 대한 기존 연구

해외를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의 포퓰리즘 연구는 주로 공급자 차원에서 포퓰리스트 정당의 등장 및 그 배경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고, 수요자인 일반

시민에서 나타나는 개인 차원의 포퓰리즘 성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도묘연 2021a; 하상웅 2018; Akkerman et al. 2014; Akkerman et al. 2017; Van Hauwaert and Van Kessel 2018; Van Hauwaert et al. 2020). 하지만 이론적으로 포퓰리즘이 여러 사상의 집합체이자 정치적 스타일의 하나임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개인 수준의 태도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Van Hauwaert and Van Kessel 2018; Van Hauwaert et al. 2020). 최근 일군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개인의 포퓰리즘 성향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포퓰리즘의 대두는 비단 정당과 정치 엘리트 수준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포퓰리즘 성향을 가진 시민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생기는 문제기 때문이다. 즉 일반 대중 역시 단순히 위로부터의 포퓰리즘에 선동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 내재된 포퓰리즘 성향을 기반으로 이에 대한 지지를 표출함으로써 포퓰리즘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Silva and Wratil 2021; Rooduijn et al. 2016). 심지어 포퓰리즘 정당과 같은 위로부터의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도 시민들 사이에서 포퓰리즘 성향이 확산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Medeiros 2021; Santana-Pereira and Cancela 2020).

이러한 개인 수준의 포퓰리즘 성향은 특히 좌우 이념과의 연계 속에서 연구되고 있다. 포퓰리즘이 주로 이념적 극단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Bertsou and Caramani 2020; Marcos-Marnea et al. 2021) 포퓰리즘을 극우 또는 극좌와 동의어로 취급하기도 하지만, 포퓰리즘과 이념 성향은 개념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다. 포퓰리즘 성향이 좌우 이념 혹은 쟁점입장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유권자의 투표선택에도 독립적이고 추가적인(additive)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Silva et al. 2020; Donovan 2019; Medeiros 2021; Santana-Pereira and Cancela 2020; Spruyt et al. 2016; Van Hauwaert and Van Kessel 2018). 물론 그럼에도 포퓰리즘 성향이 좌우 이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술한 바와 같이 포퓰리즘이란 여러 사상을 포괄하는 얇은 이념으로 그 자체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기존의 좌우 이념과의 연결을 통해 실질적 내용을 가진다. 즉 정책 공간에 스스로 존재하기보

다 좌우의 정책입장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포퓰리즘 성향은 좌와 우,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Mudde 2016, 68).

이렇듯 해외 학자들을 중심으로 개인 수준의 포퓰리즘 성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간 국내 학계의 포퓰리즘 연구는 주로 포퓰리즘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접근(김현준·서정민 2017)이나 민주주의와의 관계(정병기 2023; 주미연 2021; 차태서 2021), 특정 포퓰리즘 현상에 대한 분석(안이수 2018; 이연호·임유진 2022; 채진원 2019)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위·아래로부터의 행위자 중심적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는 한국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포퓰리스트 정당 혹은 정치인이라 부를만한 대상이 주류 정치공간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박선경 2022). 그렇다보니 위로부터의 포퓰리즘에 대한 연구도, 그에 상응하는 아래로부터의 포퓰리즘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한국 또한 갈수록 양극화되는 정치 속에서(김기동·이재묵 2021; 장승진·서정규 2019; 정동준 2018) 정치인과 정당의 포퓰리스트적 언행과 정책들이 점차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대 대선에서 양대 후보가 모두 포퓰리스트적 언사와 공약으로 비판을 받는 등(박선경 2022) 한국에서도 위로부터의 포퓰리즘 확산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안이수 2018; 이연호·임유진 2022; 차태서 2021; 채진원 2019), 아래로부터 한국 시민의 포퓰리즘 성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 ‘포퓰리즘’이라 이름할만한 정치세력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시민 차원에서 포퓰리즘을 용인하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틈을 타 포퓰리즘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최근 국내 학계에서도 시민 차원의 포퓰리즘 성향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상웅(2018)은 한국인의 포퓰리즘 성향을 분석한 연구를 통해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고, 주류정당보다는 군소정당인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에게 높은 호감

을 가진다고 하였다. 박선경(2022)은 경제적 불평등과 포퓰리즘 성향의 관계를 분석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크게 인식하는 집단에서 반엘리트주의와 인민중심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나지만 반다원주의 성향은 오히려 낮은 반면, 실제 경제적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반다원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남을 밝혀냈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송승호·김남규(2023)는 경제적 불만보다는 정치적 불만이 한국인의 포퓰리즘 성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가계경제 상황이나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경제적 불만은 포퓰리즘 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정치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는 강하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혀냈다.

최근 포퓰리즘 성향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도묘연(2021a)은 한국 시민의 포퓰리즘 성향이 진보와 보수 이념 모두에 영향을 받지만, 특히 반엘리트주의·반다원주의와 관련이 높은 보수 이념에 보다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도묘연(2022a)은 여기에 더 나아가 연령, 교육수준,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신뢰, 효능감, 이념과 같은 정치태도가 포퓰리즘의 주요 구성요소인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고, 이러한 관계는 미디어 이용이란 매개변수를 거쳐 나타남을 밝혀냈다. 또한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시위에 참가할 확률이 높고(도묘연 2021b), 대의 민주주의와 전문가 민주주의보다는 국민투표 제도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을 밝히기도 하였다(도묘연 2022b).

이렇듯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포퓰리즘 성향의 형성 배경과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최근 많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포퓰리즘 성향을 모든 집단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취급하고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좌우의 이념에 따른 포퓰리즘 성향의 서로 다른 정치적 특성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포퓰리즘 성향은 사상적으로 독립된 내용을 가지기보다, 진보와 보수와 같은 기존의 이념과의 연결 속에서 그 내용이 정해진다. 따라서 포퓰리즘 성향을 좌우 어느 이념적 입장에서 다루는지에 따라 해당

성향이 갖는 정치적 특성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3.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 그리고 민주주의와의 관계

그렇다면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 성향의 정치적 특성은 어떻게 다른가? 인민중심주의, 반엘리트주의, 엘리트-인민의 이분법 등 일반적 특징은 공유하는 가운데, 좌파 포퓰리즘 성향은 구체적인 쟁점입장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좌파 포퓰리즘은 경제적 입장, 우파 포퓰리즘은 사회문화적 입장에 보다 깊은 관련이 있다 여겨진다(Akkerman et al. 2017; Vasilopoulos and Jost 2020).

구체적으로 좌파 포퓰리즘에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경제적 진보가 엘리트에 반대하고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강조하는 포퓰리즘과 만나, 부의 재분배와 소득 평등, 대기업과 재벌 규제를 지지하는 쟁점입장을 갖는다. 이렇게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포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좌파 포퓰리즘은 ‘포용적 포퓰리즘’(inclusionary populism)이라고도 불린다(Vasilopoulos and Jost 2020). 민주주의가 소수집단에 대한 보호와 다양성에 대한 관용이란 자유주의(liberalism) 사상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좌파 포퓰리즘은 오히려 민주적 규범과 태도에 긍정적일 수 있다(정병기 2023). 반면 우파 포퓰리즘에서는 자국민 중심의 토착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문화적 보수주의가 배타적인 국민의 경계를 통해 다원주의에 반대하는 포퓰리즘과 만남으로써 반난민, 반EU 등의 입장을 형성한다. 이렇게 좌파에 비해 반다원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우파 포퓰리즘은 ‘배타적 포퓰리즘(exclusionary populism)’이라고도 일컬어진다. 따라서 우파 포퓰리즘은 민주주의가 기반하는 자유주의적·다원주의적 가치에 반대함으로써 좌파 포퓰리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민주적 규범과 태도를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와 꼭 부정적 관계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포퓰리즘이 기성 정치인의 부패와 무능, 그로 인한 대표성의 약화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만큼 포퓰리즘을 통해 엘리트 중심의 민주주의가 가진 문제점들이 보완될 여지가 있다. 정병기(2023)는 특히 시대적으로 최근 유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일련의 포퓰리즘 운동은 주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 기존의 대의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즉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 이탈리아의 오성정당 등과 같이 최근 유럽에서 약진하는 포퓰리즘 정당들은 노동자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좌파 포퓰리스트 성격이 강하고 이러한 포용적 성격이 민주주의가 기반하는 자유주의적·다원주의적 사상과 배치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퓰리즘의 개념을 보다 유연하게 본다면 모든 포퓰리즘이 꼭 민주주의의 규범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도묘연(2021a)이 정리하듯이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불협화음은 반다원주의적 속성에서 나타”나고(124) 이러한 반다원성은 인민 내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특히 소수자) 집단에 대한 배타성에서 비롯되기에, 포퓰리즘이 배타성이 아닌 포용성에 기반한다면 이러한 불협화음은 해소될 수 있다.

이렇듯 포퓰리즘 성향은 좌와 우, 어떠한 이념과 연결되는가에 따라 그에 따른 쟁점입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시민의 포퓰리즘 성향 역시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 서로 다른 쟁점입장과 민주적 지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 국내의 연구들은 포퓰리즘 성향을 전체 시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좌파와 우파를 구분하여 접근하지 못했다. 도묘연(2021a)의 연구에서 이념에 따른 포퓰리즘을 분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극)진보와 (극)보수 성향이 포퓰리즘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만을 회귀분석을 통해 밝히고 있을 뿐, 한국인 사이에서 좌우 포퓰리즘 성향이 얼마나 분포해 있는지, 각각이 갖는 정치적 특징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 연구를 보완하여 한국 시민의 포퓰리즘 성향을 좌와

우의 이념에 따라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한국인 사이에서 포퓰리즘 성향이 좌우 이념과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관련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이념에 따라 포퓰리즘 성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좌우 이념집단에 따라 포퓰리즘 성향이 어느 정도로 분포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한국인의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 성향이 서로 어떻게 다른 정치적 특성을 갖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포퓰리즘 성향의 정치적 특성으로는 선행 연구를 따라 먼저 좌우 포퓰리즘 성향의 쟁점입장이 서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좌우 포퓰리즘과 연관이 깊다고 알려진 일련의 쟁점에 대한 극단적 입장이 한국 시민에게도 나타나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에 더해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인의 좌우 포퓰리즘 성향이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에 있어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포퓰리즘이 기성정치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반대가 정부나 국회와 같은 대의 기구에 대한 불신인지 아니면 민주주의 체제 전반에 대한 반대인지를, 좌우 이념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는 특히 다수결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있어 필수적이다(정동준 2020; Accetti and Zuckerman 2017; Linz and Stepan 1996).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거론하는 민주주의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역시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의 하락이란 점에서(몽크 2018; Levitsky and Ziblatt 2018; Przeworski 2019) 한국인의 포퓰리즘 성향이 기성 정치와 대의 기구에 대한 실망과 반감 정도에 그치는지, 혹은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불신과 반대로까지 이어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 시민 사이에서 나타나는 좌우 포퓰리즘 성향의 특징을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III. 자료와 변수

분석에는 본 연구자가 (주)한국리서치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마스터 패널’에서 지역, 성, 연령에 따라 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선정한 1,834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8일까지 웹조사²⁾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분석의 핵심인 포퓰리즘 성향의 측정에는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개발된 설문항을 사용하였다. 포퓰리즘 성향의 측정 도구로 최근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커만 외의 연구(Akkerman et al. 2014)에서 출발한다. 이들은 기존의 몇몇 포퓰리즘 측정 설문(대표적으로 Hawkins et al. 2012)을 기반으로 포퓰리즘의 하위개념인 인민주권, 반엘리트주의, 이분법적 세계관을 포괄하는 6개의 설문항을 개발하였다. 이후 반하우와트와 동료들(Van Hauwaert and Van Kessel 2018; Van Hauwaert et al. 2020)은 이 6개 항목에 2개의 반엘리트주의 설문을 추가하고, 이 8개의 항목이 포퓰리즘에 내재된 하위개념들을 잘 포착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 외에도 카스타노 실바 외(Silva et al. 2018), 슈츠 외(Schulz et al. 2018), CSES(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자료 등 포퓰리즘 성향을 측정하는 여러 척도가 있지만, 모두 비슷한 포퓰리즘의 하위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타당성 등의 기준에서 아커만 외의 척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³⁾ 이러한 이유로 현재 아커만 외의 척도는 포퓰리즘 성향을 측정하는 설문항으로 학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Silva et al. 2020, 421).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아커만 외와 반 하우스와트 외가 만

-
- 2) 주요 사회경제적 층위별 비례할당과 무작위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쳤으나 리서치 기관의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웹조사라는 측면에서 대표성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박선경 2022; 하상웅 2018). 추후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 등의 방식을 통해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 3) 일곱 개의 포퓰리즘 성향 척도를 여러 내적·외적 타당성 검증을 통해 비교한 카스타노 실바 외(Silva et al. 2020)의 최근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든 8개 문항을 포퓰리즘 성향의 척도로 사용하였다(<표 1>의 설문항 1~8번). 하지만 이 척도는 포퓰리즘 성향과 관련이 있다 여겨지는 반다원주의 성향을 잘 측정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도모연 2021a; 박선경 2022; Van Hauwaert and Van Kessel 2018; Van Hauwaert et al. 2020). 물론 기술한 바와 같이 포퓰리즘이 어떤 사상과 연결되는가에 따라 포퓰리즘이 곧 반다원주의적이라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이에 대한 관련성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반 하우와트 외(Van Hauwaert and Van Kessel 2018; Van Hauwaert et al. 2020)가 제시한 3개의 반다원주의 성향 설문항을 추가로 조사하였다(<표 1>의 설문항 9~11번). 물론 기존연구의 문항들이 한국만의 독특한 맥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국내 학자들에게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도모연 2021a; 박선경 2022; 하상웅 2018).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한국인의 포퓰리즘 성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쌓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른 연구결과들과의 비교를 위해 본 분석에서는 기존의 설문항을 사용하였다.

<표 1> 포퓰리즘 관련 성향의 측정에 사용된 설문항

설문항 (5점 척도, 1: 매우 반대~5:매우 찬성)	측정 하위개념	요인1	요인2	요인3
1. 정치인들은 자신의 소신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뜻에 따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인민중심주의	0.62	0.27	0.39
2.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들은 정치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인민중심주의	0.63	0.28	0.47
3. 정치인과 일반 국민들 사이의 정치적 견해 차이는 국민들 내의 견해 차이보다 크다	반엘리트주의	0.64	0.12	0.20
4. 전문 정치인보다는 나와 같은 일반인이 나의 정치적 입장을 잘 대변해 줄 것 같다	인민중심주의	0.53	0.35	0.25
5. 정치인들은 말만 많고 실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반엘리트주의	0.73	-0.02	-0.11
6. 정치에서 "타협"이란 사실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선악의 이분법	0.24	0.62	-0.47

설문항 (5점 척도, 1: 매우 반대~5:매우 찬성)	측정 하위개념	요인1	요인2	요인3
7. 정치인들의 특수한 이익은 일반 국민들의 복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엘리트주의	0.72	-0.08	-0.25
8. 정치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합의하게 된다	반엘리트주의	0.71	-0.26	-0.31
9. 민주주의란 서로 다른 견해 사이에 타협을 이루는 것이다*	반다원주의	-0.62	0.34	0.18
10. 다른 집단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다원주의	-0.66	0.41	0.16
11. 다양성은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	반다원주의	-0.03	0.68	-0.42

* 값이 클수록 반다원주의 성향이 강하도록 값을 역코딩함.

이러한 11개의 설문항에서 포퓰리즘 성향 지수를 구성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이겐값(Eigenvalue)이 1을 넘는 요인은 세 개로 나타났고, 각 요인에 대한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을 볼 때 요인 1은 반엘리트주의 성향, 요인 2는 반다원주의 성향, 요인 3은 인민중심주의 성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요인 1이 반다원주의 성향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설문항에 가깝다는 점에서(짙은 음영 표시) 실질적으로 인민중심주의와 반엘리트주의 성향을 포괄하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성향 중 반엘리트주의 설문항의 요인적재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요인 3의 경우엔 인민중심주의 문항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얇은 음영 표시), 요인 1과 3이 각각 반엘리트주의와 인민중심주의 성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인 2는 반다원주의 문항들과 높은 연관을 보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문항들(9~11번)이 다른 포퓰리즘 요인, 특히 요인 1(반엘리트주의)과 부(否)의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포퓰리즘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반다원주의가 한국 시민들의 포퓰리즘 성향과는 큰 관련이 없고, 오히려 반대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⁴⁾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포퓰리즘 성향에 대한 다른

연구결과(박선경 2022)와 일맥상통한다. 반엘리트주의, 인민중심주의에 기반한 한국인의 포퓰리즘은 반다원주의와는 결합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즉 한국인의 포퓰리즘 성향은 민주주의가 기반하는 다원주의적 가치를 부정하기보다는, 정치적 양극화와 대표성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 기성 정치권을 비판하고 보다 큰 정치적 권한을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열망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포퓰리즘의 개념을 넓게 볼 경우, 포퓰리즘이 다른 어떤 사상·가치와 연결되는가에 따라 배타적이 될 수도 있고 포용적이 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반다원주의 경향으로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병리적 현상이 될 수 있으나, 후자라면 오히려 기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포퓰리즘 성향이 곧 반다원주의 성향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반다원주의 성향과 반대의 관계를 보이는 한국인의 포퓰리즘 성향은 민주주의에 있어 어느 정도 희망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려에 따라 본 분석에서는 요인분석 결과에서 반대의 경향을 나타낸 반다원주의 관련 3개 문항(9~11번) 및 요인 1,3과의 연관성이 낮은 6번 문항을 제외한⁵⁾ 나머지 7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포퓰리즘 성향 지수를 구성⁶⁾하였다.⁷⁾ 포퓰리즘 성향의 하위 지수로는 요인분석 결과와 기존의 하위개념을 바탕으로

-
- 4)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본 분석에서 사용한 포퓰리즘 성향 지수와 반다원주의 성향 지수 간의 상관관계가 -0.40 으로 나타났다.
 - 5)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분석 결과 6번 문항의 문항-나머지 상관계수(item-rest correlation)는 0.22에 불과해 나머지 문항들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번 문항을 제외한 7개 문항의 전체 크론바흐 알파값은 0.80으로, 6번을 포함한 8개 문항의 값(0.78)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 6번 문항을 제외하는 것이 지수의 내적타당도 면에서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6번 문항은 요인 2와의 관련이 높아, 해당 문항은 반다원주의 성향 지수에 포함하였다.
 - 6) 8개 문항으로 포퓰리즘 성향 지수를 구성하여도 분석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 7) 단순 평균이 아니라 요인적재량에 따라 각 문항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요인별 지수를 계산하기도 하였는데, 단순 평균값으로 계산한 지수와 분석 결과에 있어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인민중심주의 성향(문항 1,2,4의 평균)과 반엘리트주의 성향(문항 3,5,7,8의 평균) 지수로 구성하였다. 반다원주의 성향은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9~11번 문항에 6번 문항을 포함한 4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즉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포퓰리즘 성향 지수는 반엘리트주의와 인민중심주의를 기반으로 구성된 것으로 반다원주의 성향에 대한 측정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반다원주의 성향은 포퓰리즘 성향과 별도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각 지수의 전체 표본 및 이념 성향에 따른 집단별 평균값은 <표 2>와 같다. 이념에 따른 집단은, ‘0(매우 진보)’부터 ‘10(매우 보수)’까지의 11점 척도로 측정하는 이념 성향 설문에서 0~4점에 응답한 사람들을 진보, 5점을 중도, 6~10을 보수로 구분하였다.⁸⁾ 전체 응답자의 포퓰리즘 성향 평균은 5점 척도에 3.89로 나타났다. 연구 간에 포퓰리즘을 측정하는 지표와 이를 분석하는 방법 등이 상이하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유사한 설문항으로 분석한 하상용(2018), 도묘연(2021a), 버초우와 카라마니(Bertsou and Caramani 2020) 등의 조사결과(각각 5점 척도에 평균 3.75, 7점 척도에 평균 4.56점, 7점 척도에 평균 5.08점) 등과 비교할 때 본 조사의 포퓰리즘 수치는 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지표 별로 살펴보면 반엘리트주의 성향은 평균 4.03으로 강하게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인민중심주의와 반다원주의 성향은 각각 3.58, 2.3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 시민들 사이에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강한 반엘리트주의에 의해 추동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다원주의에는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좌우 집단⁹⁾에 따른 각 성향의 차이는 이어지는 장에서 자세히 기술하겠다.

8) 전체 1,834명의 응답자 중 진보 집단은 577명(31.5%), 중도는 650명(35.4%), 보수는 607명(33.1%)으로 조사되었다. 5점만이 아닌 4와 6점을 기록한 응답자도 중도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그 경우 너무 많은 응답자(57.1%)가 중도로 분류되어 본 분석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전반적인 좌우 집단별 경향성을 확인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상, 각 이념을 중도(moderate)와 강성(extreme)으로 세분화한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다.

9) 본 논문에서 좌파는 진보, 우파는 보수와 동의어로 보고 서로 치환하여 사용하겠다.

〈표 2〉 좌우 이념집단별 포퓰리즘 관련 성향의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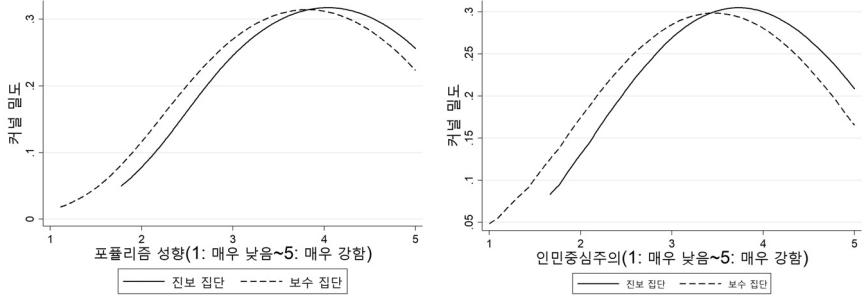
포퓰리즘 관련 변수	전체 평균 (1,834명)	진보 집단 평균 (577명)	보수 집단 평균 (607명)
포퓰리즘 성향(1:낮음~5:높음)	3.89	4.03	3.81
인민중심주의 성향(1:낮음~5:높음)	3.58	3.73	3.45
반엘리트주의 성향(1:낮음~5:높음)	4.03	4.18	3.97
반다원주의 성향(1:낮음~5:높음)	2.38	2.27	2.38

IV. 분석 및 결과

1. 좌우 이념에 따른 포퓰리즘 성향과 반다원주의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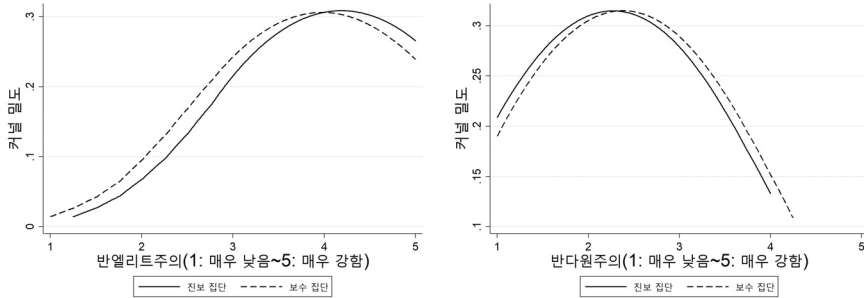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이 좌우 이념에 따른 한국인의 포퓰리즘 성향의 특징을 알아보려 한다는 점에서, 먼저 진보와 보수 집단에서 포퓰리즘 성향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앞서 사용한 이념 집단의 구분에 따라 좌우 집단별 커널(Kernel) 밀도분포를 그린 결과, <그림 1>에서 보듯 인민중심주의와 반엘리트주의로 구성된 포퓰리즘 성향은 전반적으로 보수보다는 진보 집단에서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났다. 포퓰리즘 성향과 하위 지표인 인민중심주의, 반엘리트주의 성향 모두에서 진보 집단(실선)이 보수(점선)에 비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인 것이다([그림 1-1]~[그림 1-3]). 하지만 반다원주의 성향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그림 1-4]). 진보보다는 보수 집단에서 소폭이나마 조금 더 오른쪽으로 치우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한국 시민의 포퓰리즘 성향은 보수보다는 진보에서, 그리고 반다원주의 성향은 진보보다는 보수에서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좌우 이념집단별 포퓰리즘 관련 성향 분포



[그림 1-1] 이념집단별 포퓰리즘 성향 분포

[그림 1-2] 이념집단별 인민중심주의 성향 분포



[그림 1-3] 이념집단별 반엘리트주의 성향 분포

[그림 1-4] 이념집단별 반다원주의 성향 분포

하지만 이러한 분포만으로는 이념에 따른 성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얼마나 강하고 유의미한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이념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각 성향을 종속변수로 하는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포퓰리즘 성향은 좌와 우를 막론하고 이념적 극단에서 주로 관찰된다는 점에서 (Bertsou and Caramani 2020; Marcos-Marneá et al. 2021) 이념과 포퓰리즘 성향 간에는 ‘거꾸로 된 U자’형의 관계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념 변수의 제곱항(이

념 성향×이념 성향)을 모델에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포퓰리즘 관련 각 성향이 좌와 우, 어느 집단에서 보다 강한 수준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성별, 나이, 소득(가구의 한 달 평균소득, 1: 100만원 미만~11: 1,000만원 이상), 교육수준(1: 중졸이하~6: 박사 졸업),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당파성¹⁰⁾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3〉 이념과 포퓰리즘 관련 성향 간 관계

독립 변수	모델 (종속변수)	모델 1 (포퓰리즘 성향)	모델 2 (인민중심주의)	모델 3 (반엘리트주의)	모델 4 (반다원주의)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성별(1:남성, 0:여성)		0.040	0.025	0.027	-0.042
나이		0.005 ***	0.003 ***	0.005 ***	-0.003 ***
소득 수준(1:낮음~11:높음)		0.015 ***	0.009	0.017 ***	-0.012 **
교육 수준(1:낮음~6:높음)		0.047 ***	0.007	0.064 ***	-0.086 ***
국민의힘 당파성 (1:있다, 0:없다)		-0.033	-0.020	-0.054	-0.043
더불어민주당 당파성(1:있다, 0:없다)		0.062	0.098 **	0.033	0.028
이념 성향(0: 매우 진보~10:매우 보수)		-0.111 ***	-0.147 ***	-0.105 ***	0.044 **
이념 성향×이념 성향		0.007 ***	0.010 ***	0.007 **	-0.001
상수항		3.743 ***	3.789 ***	3.775 ***	2.715 ***
응답자 수		1,834명	1,834명	1,834명	1,83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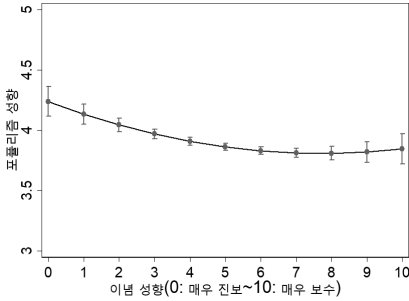
주) *** p-값<0.01, ** p-값<0.05, * p-값<0.1

10) 평소예 가깝게 느끼는 정당으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응답자 중, 해당 정당에 대한 감정이 0(매우 싫음)부터 10(매우 좋음)까지 중 6 이상인 사람만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 당파성을 가진 집단으로 집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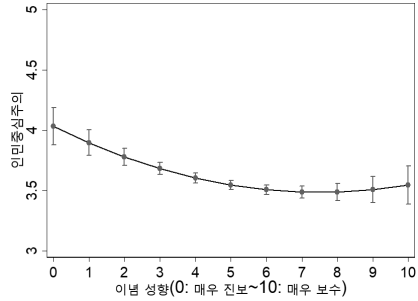
<표 3>에 제시된 분석 결과, 앞서 본 분포에서와 같이 (보수일수록 높은 값을 갖는) 이념 성향 변수는 포퓰리즘 성향 및 그 하위지표인 인민중심주의·반엘리트주의 성향과는 부의 관계가, 그리고 반다원주의 성향과는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즉,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¹²⁾ 포퓰리즘 성향은 진보 이념과, 반다원주의 성향은 보수 이념과 강하고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포퓰리즘과 인민중심주의·반엘리트주의 성향에서는 이념의 제곱항이 음의 계수값을 띠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이념과 포퓰리즘 성향 간의 거꾸로 된 U자 관계가 입증되었다. 반면 반다원주의 성향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선형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각 모델에서 이념 변수의 기대한계값(predictive margin)을 <그림 2>와 같이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그림 2-1]에서 [그림 2-3]까지 보듯, 전반적으로 중도에서 좌우 극단으로 갈수록 포퓰리즘 성향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수보다는 진보 집단에서 그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그림 2-4]에서 반다원주의 성향은 보수일수록 강해지는 선형에 가까운 관계를 보였다.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한국인의 포퓰리즘 성향은 진보와, 반다원주의 성향은 보수와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
- 11) 상호작용 분석에서 상호작용 변수를 구성하는 한 변수의 계수값은 나머지 구성변수(들)의 값이 '0'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영향력이란 점에서(Braumoeller 2004) 이념 변수만의 독립적 영향력을 <표 3>의 결과만으로는 알기 힘들다. 이를 고려하여 이념의 제곱항을 빼고 실시한 동일한 분석에서도, 이념의 계수값과 유의미도 모두 <표 3>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 12) 나이가 높을수록 포퓰리즘 성향은 높아지지만 반다원주의는 낮아지는 점, 당파성은 포퓰리즘과 반다원주의 성향에 그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 모델에 포함된 다른 변수에서도 흥미로운 결과들이 많으나, 본 분석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이념에 대한 분석결과에만 집중하도록 한다.
 - 13) 이러한 결과는 도묘연(2021a)의 최근 연구와는 사뭇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수의 구성방식이 갖는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도묘연의 연구에서는 반다원주의 성향이 포퓰리즘 성향에 포함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외에도 설문항과 변수의 구성, 분석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이념과 각 성향에 대한 두 연구의 결과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다. 한국인의 포퓰리즘 성향과 이념에 대한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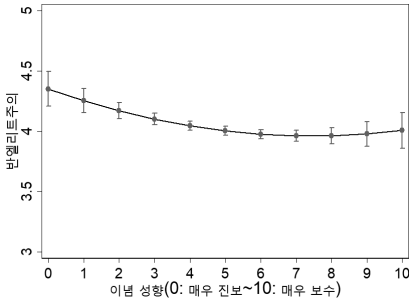
〈그림 2〉 이념 성향에 따른 포퓰리즘 관련 성향의 기대한계값(95% 신뢰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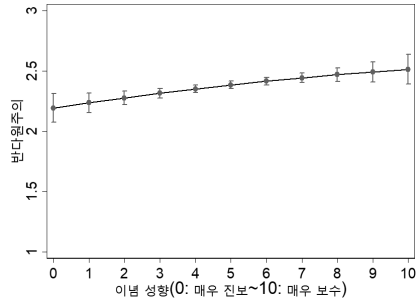
[그림 2-1] 포퓰리즘 성향에 대한 기대한계값



[그림 2-2] 인민중심주의에 대한 기대한계값



[그림 2-3] 반엘리트주의에 대한 기대한계값



[그림 2-4] 반다원주의에 대한 기대한계값

2. 좌우 포퓰리즘 성향과 반다원주의 성향의 쟁점입장

다음으로 한국 시민의 좌우 포퓰리즘 성향이 각각 어떠한 쟁점입장과 보다 강한 연관을 갖는지를 살펴보겠다. 기술하였듯이 일반적으로 좌파 포퓰리즘은 경제 이슈에 대해 시장의 논리에 반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진보적 입장

구는 향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을 띠고, 우파 포퓰리즘은 사회문화적 이슈에 대해 자국민 중심주의를 내세우고 이민, 낙태, 동성애 등에 반대하는 보수적 입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kkerman et al. 2017; Vasilopoulos and Jost 2020). 하지만 이는 주로 유럽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기에 한국의 맥락에서는 쟁점 별로 좌우 포퓰리즘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분석에는 다음의 여섯 가지 경제적·사회문화적 쟁점에 대한 입장(1:매우 반대~5:매우 찬성)을 사용하였다: ‘정부는 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재벌규제 강화), ‘경제 성장보다 복지 확대가 중요하다’(복지 확대), ‘특목고, 자사고 등의 특성화 학교는 폐지되어야 한다’(특성화고 폐지), ‘성별·종교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역코딩하여 ‘차별금지법 반대’로 변수화), ‘난민, 외국인 노동자 등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역코딩하여 ‘이주민수용 반대’로 변수화), ‘고용과 승진에 있어 여성에게 일정 비율을 할당해야 한다’(역코딩하여 ‘여성할당제 반대’로 변수화). 포퓰리즘 성향이 강할수록 어떠한 쟁점입장이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 포퓰리즘 성향¹⁴⁾을 독립변수로 삼고 각 쟁점입장을 종속변수로 한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포퓰리즘과 쟁점입장 간 관계가 진보와 보수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보기 위해 진보 집단(1: 자신의 이념 성향을 0~4로 응답한 사람, 0: 그 나머지)과 보수 집단(1: 자신의 이념 성향을 6~10으로 응답한 사람, 0: 그 나머지)을 더미변수로 만들고, 각 더미변수를 포퓰리즘 성향과 곱한 상호작용 변수를 구성하여¹⁵⁾ 분석에 포함하였다.¹⁶⁾ 이에 더해 <표 3>의 분석에 포함

14) 본 논문의 모든 분석에서 전체 포퓰리즘 지수와 그 하위지표인 인민중심주의·반엘리트주의 지수 간에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이 관찰되어, 여기서부터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전체 포퓰리즘 성향과 반다원주의 성향에만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겠다.

15) 이렇게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좌우 집단별 포퓰리즘 성향의 특징을 관찰하는 방법은 바실로풀로스과 조스트(Vasilopoulos and Jost 2020)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16) 두 상호작용 변수가 포퓰리즘 성향 변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정의 편향을 막기 위해 ‘진보집단×보수집단’, ‘포퓰리즘성향×진보집단×보수집단’ 변수도 분석에 포함하였으나(Braumoeller 2004)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모두 자동제외 되었다.

했던 일련의 통제변수를 추가하였다.¹⁷⁾

이렇게 실시한 6개 모델의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¹⁸⁾ 먼저 모델 1~3에 제시된 세 가지 진보적 쟁점의 경우, 포퓰리즘 성향 변수의 결과가 보여주듯 해당 성향이 강할수록 재벌규제를 강화하고(모델 1) 특성화고를 폐지해야 한다(모델 3)는 입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⁹⁾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특히 진보 집단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모델 1과 3의 ‘포퓰리즘 성향×진보 집단’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력을 보인 것이다. 반면 복지 확대(모델 2)의 경우에는 포퓰리즘 성향과 각 이념이 독립적으로나 상호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상호작용 변수를 구성하는 한 변수의 계수값 및 표준오차는 다른 구성변수의 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상호작용 분석은 시각화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Kam and Franzese 2007, 60-92).

<표 4> 좌우 이념집단별 포퓰리즘 성향과 쟁점입장 간 관계

독립 변수	모델 1 (재벌규제 찬성)	모델 2 (복지 확대 찬성)	모델 3 (특성화 고폐지 찬성)	모델 4 (차별 금지법 반대)	모델 5 (이주민 수용 반대)	모델 6 (여성 할당제 반대)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진보 집단 (1:이념0~4, 0:나머지)	-0.68 *	0.20	-0.71	0.05	0.70 *	0.54
보수 집단 (1:이념6~10, 0:나머지)	-0.55	-0.35	0.15	0.59	0.83 **	0.36
포퓰리즘 성향	0.19 ***	0.03	0.12 *	-0.19 **	0.20 ***	-0.03
포퓰리즘 성향×진보 집단	0.26 ***	0.03	0.24 **	-0.10	-0.23 **	-0.20 **

17) 통제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지면의 제약으로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18) 지면의 제약으로 <표 4>~<표 7>에서 통제변수의 결과는 생략하였다. 통제변수를 포함한 전체 결과는 저자에게 요청 시 제공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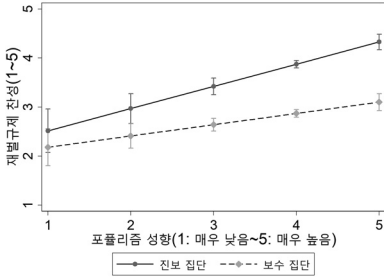
19) 주석 15와 같이 포퓰리즘 성향의 독립적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상호작용 변수를 제외하고 실시한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독립 변수	모델 1 (재벌규제 찬성)	모델 2 (복지 확대 찬성)	모델 3 (특성화 고폐지 찬성)	모델 4 (차별 금지법 반대)	모델 5 (이주민 수용 반대)	모델 6 (여성 할당제 반대)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포퓰리즘 성향×보수 집단	0.04	0.03	-0.11	-0.09	-0.20 **	-0.04
상수항	3.17 ***	3.34 ***	2.28 ***	3.36 ***	3.21 ***	2.89 ***
응답자 수	1,834명	1,834명	1,834명	1,834명	1,834명	1,83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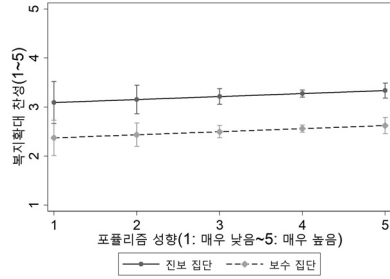
주) *** p-값<0.01, ** p-값<0.05, * p-값<0.1, 통제변수의 결과는 생략함.

이에 따라 각 쟁점입장에 대하여 포퓰리즘 성향에 따른 기대한계값의 변화를 좌우 집단별로 나누어 <그림 3>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 결과 [그림 3-1]부터 [그림 3-3]의 세 진보적 쟁점에서 진보 집단이 보수에 비해 전반적으로 강한 태도(y 축의 수준)를 보인 가운데, 포퓰리즘이 쟁점입장에 미친 영향력의 크기(기울기)는 재벌규제 강화([그림 3-1])와 특성화고 폐지([그림 3-3])에서 진보 집단이 보수에 비해 가파르게 나타났다. 반면 이러한 집단별 차이가 복지 확대([그림 3-2])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포퓰리즘 성향이 강해질수록 복지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 소폭 상승하긴 하였으나 이러한 기울기가 두 집단에서 특별히 다르지 않게 나온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 확대가 좌우를 막론하고 포퓰리즘 성향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특성이라는 아커만 외(Akkerman et al. 2017)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좌파뿐 아니라 우파 포퓰리스트 역시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재분배를 확대하는 진보적 입장으로 이동하고 있기에,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좌우 간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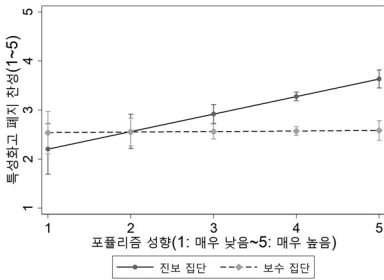
<그림 3> 좌우 이념집단별 포퓰리즘 성향에 따른 쟁점입장의 기대한계값(95% 신뢰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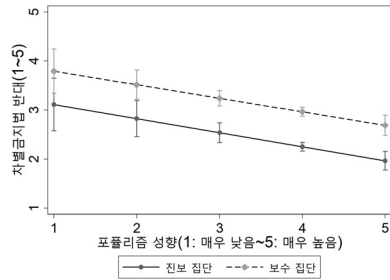
[그림 3-1] 재벌규제에 대한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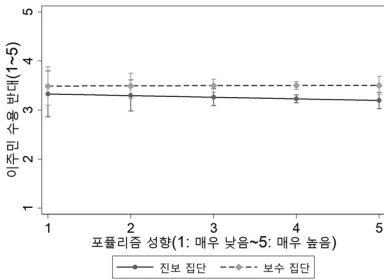
[그림 3-2] 복지확대에 대한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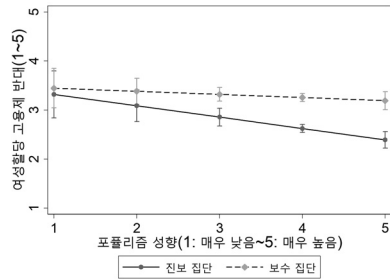
[그림 3-3] 특성화고 폐지에 대한 입장



[그림 3-4]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



[그림 3-5] 이주민 수용에 대한 입장



[그림 3-6] 여성할당제에 대한 입장

다음으로 보수적 쟁점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우파 포퓰리스트의 특징으로 지목됐던 쟁점입장이 본 분석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았다. 여성, 소수자, 이민자

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관용적 태도가 포퓰리즘 성향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때문이다. <표 4>의 모델 4와 [그림 3-4]에서 보듯 차별금지법 반대의 경우에 오히려 포퓰리즘 성향이 강할수록 그 태도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할당제의 경우에는 모델 6과 같이 포퓰리즘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주민 수용의 경우 포퓰리즘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오긴 하였으나(모델 5), [그림 3-5]에서 보듯 그래프의 기울기가 뚜렷한 우상향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림 3-4]~[그림 3-6]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관계를 보더라도 모든 쟁점에서 보수 집단이 진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강한 태도를 나타내긴 하였으나, 특별히 더 가파른 우상향의 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유럽 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이민, 동성애와 같은 사회문화적 이슈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렇게까지 시민들을 가르는 쟁점이 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재벌규제와 재분배 등과 같이 보수보다는 진보 쪽에서 포퓰리즘을 발현시킬 수 있는 쟁점들이 우리 사회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기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종합하면, 좌파 포퓰리즘 성향에 비해 우파 포퓰리즘 성향의 특징이라 할만한 뚜렷한 쟁점입장이 관찰되지 않았다. 앞선 분석에서 포퓰리즘 성향이 우파보다 좌파에서 높은 빈도로 관찰되고 진보 이념과의 상관성이 더 강했던 것에 더하여, 쟁점에 대한 입장 역시 우파 포퓰리즘보다 좌파 포퓰리즘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²⁰⁾ 이를 통해 한국인의 포퓰리즘 성향은 그 분포, 이념과의 관계, 그리고 쟁점입장에 있어 모두 보수보다는 진보와의 연관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다원주의 성향은 좌우에 따라 어떠한 쟁점입장을 보이고, 이는 포퓰리즘 성향과 어떠한 차이를 보일까? 동일한 분석을 반다원주의 성향에 대해

20) 물론 포퓰리즘 성향 자체가 진보 집단에서 더 강하게 관찰되었기에 쟁점입장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 추론할 수도 있다. 하지만 뒤이은 분석에서 보듯, 보수와의 연관성이 높았던 반다원주의 성향의 경우에도 우파 반다원주의 성향이 좌파에 비해 특별한 쟁점입장을 띠지 않았다.

실시한 결과, <표 5>의 모델 1~3에서 보듯 반다원주의 성향은 포퓰리즘 성향과 유사하게 세 가지 진보적 쟁점에 대해 모두 유의미한 양의 영향력을 보였다.²¹⁾ 이는 반다원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진보적 쟁점에 대한 입장 역시 강해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좌우 집단에 따른 이러한 영향력의 변화는 포퓰리즘 성향과는 사뭇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모델 1~3의 ‘반다원주의 성향×진보 집단’ 변수가 보여주듯, 진보 집단에서 그 영향력의 정도가 보다 강하게 나타난 포퓰리즘 성향과 달리 반다원주의에서는 오히려 진보 집단에서 그 영향력의 크기가 약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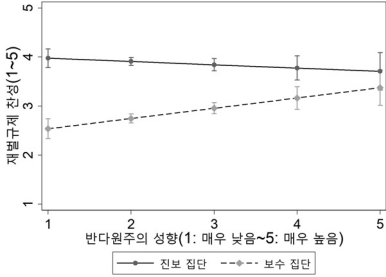
<표 5> 좌우 이념집단별 다른 반다원주의 성향과 쟁점입장 간 관계

독립 변수	모델 1 (종속변수) (재벌규제 찬성)	모델 2 (복지 확대 찬성)	모델 3 (특성화 고폐지 찬성)	모델 4 (차별 금지법 반대)	모델 5 (이주민 수용 반대)	모델 6 (여성 할당제 반대)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진보 집단 (1:이념0~4, 0:나머지)	0.94 ***	0.77 ***	1.17 ***	-0.49 *	-0.77 ***	-0.72 ***
보수 집단 (1:이념6~10, 0:나머지)	-0.53 **	-0.13	-0.64 **	0.68 **	-0.17	0.39
반다원주의 성향	0.16 **	0.16 **	0.25 ***	0.29 ***	-0.07	-0.06
반다원주의 성향×진보 집단	-0.22 **	-0.18 *	-0.38 ***	0.07	0.24 **	0.19 *
반다원주의 성향×보수 집단	0.05	-0.04	0.16	-0.17	0.10	-0.07
상수항	3.34 ***	2.99 ***	1.95 ***	1.94 ***	4.12 ***	2.99 ***
응답자 수	1,834명	1,834명	1,834명	1,834명	1,834명	1,83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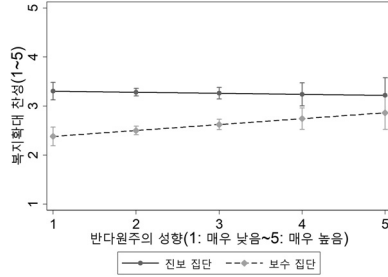
주) *** p-값<0.01, ** p-값<0.05, * p-값<0.1, 통계변수의 결과는 생략함.

21) 주식 15, 20과 마찬가지로 상호작용 변수를 제외한 분석에서도 반다원주의 성향의 독립적 영향력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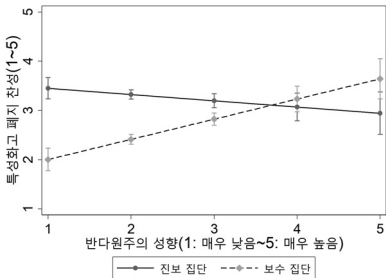
<그림 4> 좌우 이념집단별 반다원주의 성향에 따른 쟁점입장의 기대한계값(95% 신뢰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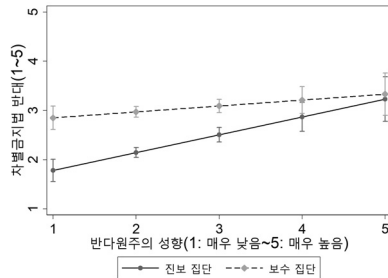
[그림 4-1] 재벌규제에 대한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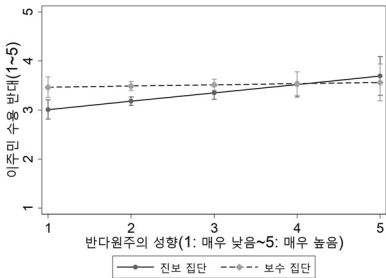
[그림 4-2] 복지확대에 대한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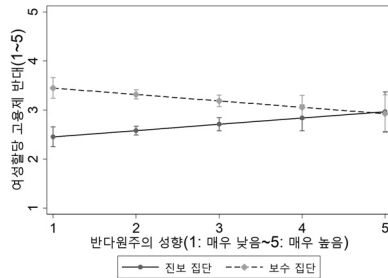
[그림 4-3] 특성화고 폐지에 대한 입장



[그림 4-4]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



[그림 4-5] 이주민 수용에 대한 입장



[그림 4-6] 여성활동고용제한에 대한 입장

이를 시각화한 <그림 4>의 [그림 4-1]~[그림 4-3]을 봐도 진보 집단의 기울기는 전반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좌우 집단에 따라 쟁점에 대한 입장이 ‘분기’(diverge)되었던 포퓰리즘 성향과 달리, 반다원주의 성향에서는

그 성향이 강해질수록 좌우 집단 간의 입장이 오히려 ‘수렴(converge)’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진보의 경우 반다원주의 성향과 상관없이 진보적 쟁점에 대해 강한 입장을 보인 반면, 보수의 경우에는 반다원주의 성향이 강해질수록 해당 쟁점에 강한 입장을 가지게 됨으로써 두 집단 간 입장이 유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파적 쟁점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4-4]~[그림 4-6]을 보면 보수 집단에서는 반다원주의 성향과 상관없이 보수 쟁점에 대해 비교적 강한 입장을 보인 반면, 진보에서는 반다원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해당 쟁점에 대한 입장이 강해져 결국 두 집단 간 입장이 비슷하게 강한 수준이 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반다원주의의 경우 포퓰리즘 성향처럼 진보와 보수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기보다는, 그 성향이 강해질수록 좌와 우를 막론하고 쟁점에 대한 극단적 입장이 강화됨을 보여준다.

3. 좌우 포퓰리즘 성향과 반다원주의 성향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포퓰리즘과 반다원주의 성향은 일련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이러한 관계는 좌우 집단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포퓰리즘이 반기성주의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대표적 대의 기구인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0(전혀 신뢰하지 않음)’부터 ‘10(완전히 신뢰함)’까지의 11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6>의 모델 1, 2와 <그림 5>의 [그림 5-1], [그림 5-2]에서 보듯, 포퓰리즘 성향은 정부와 국회 신뢰 모두와 부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²²⁾ 포퓰리즘 성향이 강해질수록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였고, 특히 국회에 대한 신뢰에서 이러한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같은 관계는 진보와 보수 집단을 막론하고 나타났는데,

22) 좌우 집단과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하지 않고 포퓰리즘 성향만을 포함한 모델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포퓰리즘 성향과의 상호작용 변수가 진보와 보수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것이다. <그림 5>를 보더라도 두 집단의 기울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한국인의 포퓰리즘 성향은 좌우를 막론하고 모두 정부와 국회에 대한 낮은 신뢰를 보임이 밝혀졌다.

<표 6> 좌우 이념집단별 포퓰리즘 성향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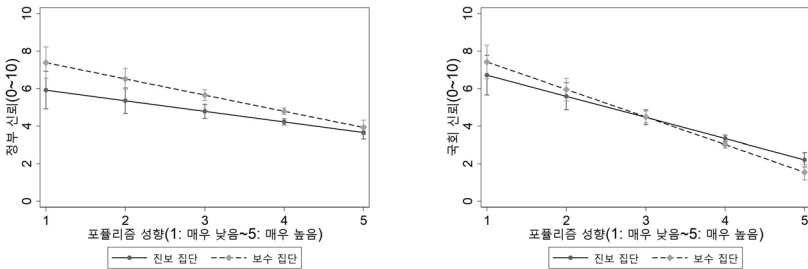
독립 변수	모델 (종속변수)	모델 1 (정부 신뢰)	모델 2 (국회 신뢰)	모델 3 (민주주의 체제 지지)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진보 집단 (1: 이념 0~4, 0:나머지)		-0.81	-1.14	0.45 *
보수 집단 (1: 이념 6~10, 0:나머지)		0.80	0.04	-0.43 *
포퓰리즘 성향		-0.73 ***	-1.42 ***	0.23 ***
포퓰리즘 성향×진보 집단		0.17	0.30	-0.09
포퓰리즘 성향×보수 집단		-0.13	-0.04	0.13 **
상수항		6.94 ***	9.39 ***	1.90 ***
응답자 수		1,834명	1,834명	1,834명

주) *** p-값<0.01, ** p-값<0.05, * p-값<0.1, 통계변수의 결과는 생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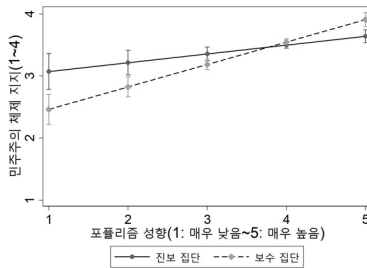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러한 대의 기구에 대한 불신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까? 이를 보기 위해 ‘민주주의 체제 역시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른 어떤 정치체제보다 낫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1(전혀 동의하지 않음)’부터 ‘4(매우 동의함)’까지의 4점 척도로 조사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포퓰리즘 성향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의 모델 3과 <그림 5>의 [그림 5-3]). 특히 이러한 관계는 보수 집단에서 강하게 나타났는데, 포퓰리즘 성향과 보수 집단 간의 상호작용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인 것이다. [그림 5-3]을 보더라도

보수 집단의 기울기가 진보보다 더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보수 집단이 진보보다 민주주의 체제를 더 지지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반적인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 정도는 진보 집단(평균 3.50)이 보수(평균 3.48)보다 소폭 높고 [그림 5-3]에서 나타나듯 포퓰리즘 성향이 낮은 집단에서는 진보가 보수에 비해 높은 지지를 보이지만, 보수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기에 포퓰리즘이 4를 지나면서부터는 보수의 지지 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 좌우 이념집단별 포퓰리즘 성향에 따른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의 기대한계값(95% 신뢰구간)



[그림 5-1] 정부 신뢰에 대한 기대한계값 [그림 5-2] 국회 신뢰에 대한 기대한계값



[그림 5-3] 민주주의 지지에 대한 기대한계값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포퓰리즘 성향이 반다원주의 성향과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는 앞선 요인분석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즉 우리 국민의 포퓰리즘 성향

은 민주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다원주의나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 정치의 실패와 대표성의 문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민주권의 회복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의 포퓰리즘 성향은 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을 가지나 오히려 이를 바탕으로 아래로부터의 정치적 주권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특징은 반다원주의 성향에 대한 같은 분석을 통해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표 7>의 모델 3을 보면 반다원주의 성향은 민주주의 체제 지지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력을 보였다. 즉, 위 포퓰리즘 성향의 분석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한 [그림 6-3]에서도 반다원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경향은 진보보다 보수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나, 기울기의 차이를 볼 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었다. 반면 정부 신뢰의 경우에는 반다원주의 성향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였다(모델 1). 국회 신뢰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다원주의 성향과 긍정적인 관계가 나타나긴 하였으나(모델 2), [그림 6-2]에서 보듯 전반적인 반다원주의 성향 값에서 낮은 수준의 신뢰를 보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정리하면 한국인의 포퓰리즘 성향은 대의 기구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지만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지는 않는 반면, 반다원주의 성향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인의 포퓰리즘 성향은 반엘리트주의와 인민중심주의로 표현될 수는 있으나, 반다원주의나 반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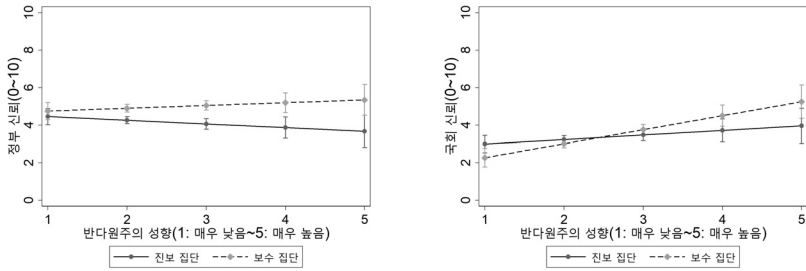
<표 7> 좌우 이념집단별 반다원주의 성향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독립 변수	모델 (종속변수)	모델 1 (정부 신뢰)	모델 2 (국회 신뢰)	모델 3 (민주주의 체제 지지)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진보 집단(1: 이념 0~4, 0:나머지)		0.14	1.44 **	-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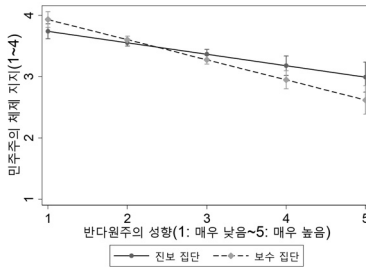
독립 변수	모델 (종속변수)	모델 1 (정부 신뢰)	모델 2 (국회 신뢰)	모델 3 (민주주의 체제 지지)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보수 집단(1: 이념 6~10, 0:나머지)		-0.08	0.31	0.09
반다원주의 성향		-0.03	0.87 ***	-0.31 ***
반다원주의 성향×진보 집단		-0.17	-0.62 ***	0.12 *
반다원주의 성향×보수 집단		0.17	-0.12	-0.02
상수항		4.53 ***	2.10 ***	3.56 ***
응답자 수		1,834명	1,834명	1,834명

주) *** p-값<0.01, ** p-값<0.05, * p-값<0.1, 통제변수의 결과는 생략함.

〈그림 6〉 좌우 이념집단별 반다원주의 성향에 따른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의 기대한계값(95% 신뢰구간)



[그림 6-1] 정부 신뢰에 대한 기대한계값 [그림 6-2] 국회 신뢰에 대한 기대한계값



[그림 6-3] 민주주의 지지에 대한 기대한계값

V. 결론 및 함의

개인 차원의 포퓰리즘 성향은 좌와 우, 어느 이념 성향에 연결되는가에 따라 그 쟁점입장과 정치적 태도 등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포퓰리즘 성향을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으로 구분하고, 각 성향의 분포와 정치적 특성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포퓰리즘 연구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아직 국내 학계에서는 한국인의 포퓰리즘 성향을 좌와 우로 구분하여 각 성향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는 거의 실시된 바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국 시민의 포퓰리즘 성향을 좌우 이념에 따라 구분하고, 좌우 포퓰리즘 성향이 각각 얼마나 강하게 퍼져 있는지, 그리고 각 성향이 서로 어떻게 다른 쟁점입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기존 연구에 바탕을 둔 일련의 설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포퓰리즘 성향은 반엘리트주의와 인민중심주의에 기반하고 있고 반다원주의와는 오히려 반대의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포퓰리즘 성향과 반다원주의 성향 지수를 따로 구성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먼저 좌우 집단에 따른 각 성향의 분포에서 포퓰리즘 성향은 보수보다 진보 집단에서 소폭이나마 강하게 나타난 반면 반다원주의 성향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다. 이념과 각 성향 간 관계를 회귀분석해 본 결과에서도, 포퓰리즘 성향은 보수보다는 진보의 극단으로 갈수록 강하게 나타난 반면 반다원주의 성향은 보수일수록 강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한국인의 포퓰리즘 성향은 보수보다는 진보와, 반다원주의 성향은 진보보다는 보수와 보다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쟁점입장에 따른 좌우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포퓰리즘 성향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우파보다는 좌파 포퓰리즘에서 보다 뚜렷한 쟁점입장이 관찰되었다. 좌파 포퓰리즘의 경우에는 재벌규제 확대와 특성화고 폐지 등의 쟁점에서 보다 강한 진보적 입장을 보인 반면, 우파 포퓰리즘에서는 이들만의 두드러

진 쟁점입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반다원주의 성향의 경우에는 좌우 집단에 따른 특별한 경향이 관찰되지 않은 가운데, 해당 성향이 강해질수록 두 집단 간의 입장이 극단적인 수준에서 수렴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인의 포퓰리즘 성향은 좌파 포퓰리즘에서만 특징적인 쟁점입장이 나타나고 있으며, 반다원주의 성향은 좌우를 막론하고 쟁점에 대한 극단주의 입장을 강화시킴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에 있어 포퓰리즘 성향은 진보와 보수에서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좌우 포퓰리즘 모두에서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게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의 기구에 대한 불신이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오히려 좌우 모두에서 포퓰리즘 성향이 강할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였다. 반면 반다원주의 성향의 경우에는 좌우를 막론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켰다. 이를 통해 한국인의 포퓰리즘 성향은 민주주의 체제와 다원주의적 가치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기성정치의 실패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민주권으로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자는 아래로부터 열망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시민 사이에 우파 포퓰리즘보다는 좌파 포퓰리즘 성향이 보다 강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같은 결과는 아직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들이 이민, 동성애와 같은 사회문화적, 우파적 이슈기보다는, 재벌규제와 재분배와 같은 경제적, 진보적 이슈이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 특유의 맥락으로 인해 위로부터 엘리트 차원에서도 포퓰리즘이란 표현은 그간 보수보다는 주로 진보 정당·정권의 수식어로 많이 사용되었다(안이수 2018; 이연호·임유진 2022; 차태서 2021; 채진원 2019). 이에 반해 보수에서는 태극기 부대나 일부 극우 기독교 집단에서 우파 포퓰리즘에 해당하는 정치적 담론을 피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하는 세력은 제한적이고 보수 정당·정권 내에서도 이들과의 연결을 공식적으로는 자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포퓰리즘 성향은 우파보다는 좌파 집단에 좀 더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좌파 포퓰리즘의 대두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차원에서 마냥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기술하였듯이 오늘날 등장한 포퓰리즘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곧 반다원주의와 반민주주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포퓰리즘이 기성 정치의 실패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민 주권의 열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사회의 포퓰리즘이 민주주의가 기반하는 자유주의적·다원주의적 가치에 동조하는지, 아니면 배타적 국민관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불신하고 거부하는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는 긍정적 해석을 가능케 한다. 한국 시민의 포퓰리즘 성향은 반엘리트주의와 반기성주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오히려 다원적 가치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좌파 포퓰리즘은 우파와 달리 경제적 약자를 끌어안으려는 포용적 포퓰리즘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강한 좌파 포퓰리즘은 다원주의적 가치의 확산을 통해 오히려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즉, 한국인의 포퓰리즘 성향은 대의 민주주의가 갖는 대표성의 한계를 아래로부터의 정치적 권한 강화를 통해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다원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들려는 긍정적 현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있다. 포퓰리즘 성향이 강할수록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 기구인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다는 것은 포퓰리즘의 확산이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아무리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더라도 현대의 민주주의에서 대표를 통한 정치는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전통적 대의제에 대한 불신은 체제의 위기를 가중할 수 있다. 또한 그 정도가 낮기는 하나,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일정 수준의 반다원주의 성향이 관찰되고 있다는 점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민 사이에 잠재되어있는 반다원주의적 가치를 일부 극우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것이 불씨가 되어

우파 포퓰리즘이 퍼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 시민의 포퓰리즘 성향이 현재까지는 반다원주의와 함께 가고 있지 않지만, 우파 포퓰리즘이 보다 큰 세력으로 성장할 경우 반다원주의와의 연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시민의 포퓰리즘 성향이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의 기구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반다원주의 세력의 등장과 성장을 계속하여 경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기동·이재목. 2021. “한국 유권자의 당파적 정체성과 정서적 양극화.” 『한국정치학회보』 55권 2호, 57-87.
- 김현준·서정민. 2017. “포퓰리즘 정치 개념 고찰: 문화적 접근의 관점에서.” 『한국정치학회보』 51권 4호, 49-74.
- 도묘연. 2021a. “한국 대중의 이념 정향이 포퓰리즘 성향에 미치는 영향.” 『의정연구』 27권 1호, 118-155.
- _____. 2021b. “한국 대중의 포퓰리즘 성향이 시위 참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연구』 30권 1호, 93-126.
- _____. 2022a.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성, 미디어 이용, 포퓰리즘 성향의 영향구조.” 『한국정당학회보』 21권 1호, 81-117.
- _____. 2022b. “포퓰리즘 성향의 한국 대중들은 어떠한 민주주의를 선호하는가?” 『한국정치연구』 31권 3호, 183-214.
- 박선경. 2022.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한국의 포퓰리즘? 경제적 불평등 인식과 경제적 취약계층의 포퓰리즘 성향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32권 1호, 1-24.
- 송승호·김남규. 2023. “한국인의 정치적·경제적 불만과 포퓰리즘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57권 1호, 59-84.
- 안이수. 2018.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 : Q방법론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권 11호, 306-316.
- 이연호·임유진. 2022.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populism).” 『문화와 정치』 9권 3호, 5-34.
- 장승진·서정규. 2019. “당파적 양극화의 이원적 구조: 정치적 정체성, 정책선호, 그리고 정치적 세련도.” 『한국정당학회보』 18권 3호, 5-29.
- 정동준. 2018.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유권자들의 정치 양극화 : 당파적 배열과 부정적 당파성을 중심으로.” 『오토피아』 33권 3호, 143-180.
- _____. 2020.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민투표, 사법

- 심사권, 그리고 정당해산제도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13권 1호, 79-115.
- 정병기. 2023. “현대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서유럽의 신포퓰리즘과 포스트포퓰리즘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32권 1호, 141-164.
- 주미연. 2021. “정치불신과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선진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5권 3호, 153-188.
- 차태서. 2021.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불화: 한국에서 포퓰리즘적 계기의 출현.” 『정치.정보연구』 24권 3호, 139-170.
- 채진원. 2019. “포퓰리즘의 이해와 이재명 현상에 대한 시론적 논의.” 『사회과학논집』 50권 1호, 53-76.
- 하상응. 2018. “한국 유권자의 포퓰리즘 성향이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 『의정연구』 53권 1호, 135-170.
- Accetti, Carlo Invernizzi and Ian Zuckerman. 2017. “What’s Wrong with Militant Democracy?” *Political Studies* 65(1S): 182-199.
- Akkerman, Agnes, Cas Mudde, and Andrej Zaslove. 2014. “How Populist Are the People? Measuring Populist Attitudes in Voter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7(9): 1324-1353.
- Akkerman, Agnes, Andrej Zaslove, and Bram Spruyt. 2017. “‘We the People’ or ‘We the Peoples’? A Comparison of Support for the Populist Radical Right and Populist Radical Left in the Netherlands.” *Swiss Political Science Review* 23(4): 377-403.
- Bertsou, Eri, and Daniele Caramani. 2020. “People Haven’t Had Enough of Experts: Technocratic Attitudes among Citizens in Nine European Democrac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6(1): 5-23.
- Braumoeller, Bear. 2004. “Hypothesis testing and multiplicative interaction term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8(4): 807-820.
- Donovan, Todd. 2019. “Authoritarian attitudes and support for radical right populists.”

- Journal of Elections, Public Opinion and Parties* 29(4): 448-464.
- Grzymala-Busse, Anna. 2019. "The Failure of Europe's Mainstream Parties." *Journal of Democracy* 30(4): 35-47.
- Hawkins, Kirk A, Scott Riding, and Cas Mudde. 2012. "Measuring populist attitudes." Political Concepts Committee on Concepts and Methods Working Paper Series 55: 1-35.
- Kam, Cindy D. and Robert J. Franzese. 2007. *Model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ve hypotheses in regression analysi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evitsky, Steven and Daniel Ziblatt. 2018. *How Democracies Die*. New York: Crown.
- Linz, Juan and Alfred Stepan. 1996.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oew, Nicole, and Thorsten Faas. 2019. "Between Thin- and Host-ideologies: How Populist Attitudes Interact with Policy Preferences in Shaping Voting Behaviour." *Representation* 55(4): 493-511.
- Marcos-Marnea, Hugo, Ivan Llamazares, and Susumu Shikano. 2021. "Left-Right radicalism and Populist attitudes in France and Spain."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 <https://doi.org/10.1080/14782804.2021.1918650>.
- Medeiros, Mike. 2021. "Demand without Supply: Populist Attitudes without Salient Supply-Side Factors of Populism."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4(4): 918-938.
- Mounk, Yascha. 2018. *The People vs. Democracy: Why Our Freedom Is in Danger and How to Save I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udde, Cas. 2007. *Populist radical right parties in Europ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dde, Cas. 2016. *On Extremism and Democracy in Europe*. New York, NY: Routledge.

- Mudde, Cas and Cristobal Rovira Kaltwasser. 2017. *Popul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Przeworski, Adam. 2019. *Crises of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mmer, Karen L. 2012. "The rise of leftist-populist governance in Latin America: The roots of electoral chang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5: 947-972.
- Rooduijn, Matthijs, Wouter van der Brug, and Sarah L. de Lange. 2016. "Expressing or fuelling discontent?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ist voting and political discontent." *Electoral Studies* 43: 32-40.
- Santana-Pereira, José, and João Cancela. 2020. "Demand without Supply? Populist Attitudes and Voting Behaviour in Post-Bailout Portugal." *South European Society & Politics* 25(2): 205-228.
- Sartori, Giovanni. 1970. "Concept Misform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4): 1033-53.
- Schulz, Anne, Philipp Muller, Christian Schemer, Dominique S. Wirz, Martin Wettstein, and Werner Wirth. 2018. "Measuring Populist Attitudes on Three Dimens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30(2): 316-326.
- Silva, Bruno Castanho and Christopher Wratil. 2021. "Do parties' representation failures affect populist attitudes? Evidence from a multinational survey experiment."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 1-16.
- Silva, Bruno Castanho et al. 2018. "Public Opinion Surveys: A New Scale." In *The Ideational Approach to Populism: Theory, Method & Analysis*, edited by Kirk Hawkins, Ryan Carlin, Levente Littvay, and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150-178. Oxon, New York: Routledge.
- Silva, Bruno, Sebastian Jungkunz, Marc Helbling, and Levente Littvay. 2020. "An Empirical Comparison of Seven Populist Attitudes Scale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73(2): 409-424.
- Spruyt, Bram, Gil Keppens and Filip Van Droogenbroeck. 2016. "Who Supports

- Populism and What Attracts People to It?"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9(2): 335-346.
- Van Hauwaert, Steven M., and Stijn Van Kessel. 2018. "Beyond protest and discontent: A cross-national analysis of the effect of populist attitudes and issue positions on populist party suppor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7(1): 68-92.
- Van Hauwaert, Steven M., Christian H Schimpf, and Flavio Azevedo. 2020. "The measurement of populist attitudes: Testing cross-national scales using item response theory." *Politics* 40(1): 3-21.
- Vasilopoulos, Pavlos, and John T. Jost. 2020. "Psychological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between left-wing and right-wing populists: Evidence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in Fra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88: <https://doi.org/10.1016/j.jrp.2020.104004>.

투고일: 2023.06.08.	심사일: 2023.07.31.	게재확정일: 2023.07.31.
------------------	------------------	--------------------

A Comparative Study of Left-Wing and Right-Wing Populist Attitudes among South Koreans

Jung, Dong-Joon | Inh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prevalence of left-wing and right-wing populist attitudes in South Korea and their distinct political characteristics. From the author's original survey data, left-wing populist attitudes are found to be more widespread compared to right-wing populism among South Koreans, and they exhibit stronger associations with extreme issue positions. In contrast, anti-pluralist attitudes are more strongly correlated with right-wing populism. Both left- and right-wing populist attitudes display low levels of trust i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yet tend to support democratic system itself. However, anti-pluralist attitudes weaken democratic suppor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uth Koreans' populist attitudes, separate from anti-pluralism, have the potential to strengthen democracy by empowering individuals' political rights. Nonetheless, caution is necessary due to the negative impact of low political trust when associated with the potential rise of right-wing populism and anti-pluralist attitudes, which may hinder democratic consolidation in the future.

Key Words | Left-wing Populist Attitudes, Right-wing Populist Attitudes, Extreme Issue Positions, Political Trust, Democratic Support